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만드는 장소는 어디인가?*

— 랑시에르(J. Rancière)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

박 주 원**

• 요 약 •

이 글은 현대 민주주의 논의의 새로운 문제제기와 방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시도로서, 랑시에르(J. Rancière)의 민주주의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급진적 장소와 방향을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급진성(the radical)’을 구성하며 의미하는지의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논쟁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해석과 정치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을 특히 대의제, 공화주의, 계약론적 민주주의론의 논거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 홉스(T. Hobbes)적 근대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정치사상을 정치, 권력,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정치 이론의 역사적 논쟁 속에 개입시키고 연관시켜 보고자 하였다.

근대 이래 공동체의 질서를 수립하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안의 정치가 국가와 정치의 개념을 구성해왔다면, 그에게 정치는 공동체를 지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일치하는 인간행위의 형태이자 명령을 작동시키는 규칙들에 대한 예외를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민주주의는 통치나 치안의 과정과 평등의 과정과의 이질적인 마주침이 일어나는 ‘경계’의 장소이자 실천의 순간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정치 개념과 민주주의 개념은 근대 계약론적 민주주의가 가정하는 질서와 합의로서의 정치와 주권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고자 하는 하나의 비판적 시도라고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은 ‘협약’이나 ‘합의’가 아니라 ‘불일치’ 혹은 ‘불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불화’로서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합의가 아닌 갈등을 인정하고 주목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없는 것, 지금 목소리로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새로운 출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화’는 현재 존재하는 제 논의들 간의 경쟁이나 제 세력들 간의 투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의 새로운 출현, 현재 없던 목소리의 담론적 출현을 의미한다. 불가능했던 것의 출현으로 인해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 척도, 기준에 대해 생겨나게 된 낯선 시선과 불편함. 소란스러움이 바로 그가 이야기하는 불화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의 급진적 장소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기

* 이 연구는 2023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에는' 없다.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의 급진적 장소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 장소', 그러므로 지금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출현하게 될 불가능성의 가능성인 것이다.

주제어 : 자크 랑시에르, 급진 민주주의, 정치적인 것(le politique), 불화(Mésentente), 지금 여기에 없는, 불가능성의 가능성

I. 서론: 급진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프롤로그

이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 논의의 새로운 문제제기와 방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시도로서, 랑시에르(J. Rancière)의 민주주의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급진적 장소와 방향을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앞선 글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에 대해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정치적 제도의 공학으로 간주되고 지켜야만 할 규칙으로 찬미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온하고 혼란스런 것으로 증오하게 된 오늘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바 있었다.¹⁾ 이 글은 이러한 비판적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가진 철학적 전제와 정치적 함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자크 랑시에르(J. Rancière)의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을 보다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이 랑시에르에 주목하려는 까닭은 그가 근대 민주주의 논의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계약론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관점 모두를 넘어 새로운 사유와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은 랑시에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철학, 교육학, 미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정치 개념에 대한 연구 또한 대부분 철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²⁾ 그의 민주주의 개념을 근현대 정치이론의 연속

1) 박주원. 2021. “민주주의의 슬픔-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기억과전망』, 통권44호, 1장, 4장 참조.

2) 주로 미학 분야에서 제출된 연구로는 김기수. 2016. “랑시에르의 ‘비판적 예술’에 관하여-예술적 전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83집 제1권; 김지영. 2012. “이미지와 주체”,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코키토』; 김희영. 2011. “자율성을 벗어난 추상: 랑시에르의 미학의 정치에 대한 고찰”, 현대미술학회, 『현대미술학논문집』, 제15권 2호; 박민수. 2012. “정치와 미학 그리고 예술-랑시에르의 사상에 관하여”,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제27집; 이영주. 2013. “마르쿠제와 랑시에르의 정치미학에 관한 이론적 탐색”, 『커뮤니케이션이론』, 제9집 4호 등이 있으며, 교육학 분야에서는 Biesta, G. & Bingham, C. 2010. *Jacques Rancière: Education, Truth, Emancipation*. London & New York: Continuum; Galloway, Sarah. 2012. “Reconsidering Emancipatory Education: Staging a Conversation between Paulo Freire and Jacques Rancière”, *Educational Theory*, 62(2)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랑시에르에

선상에서 근대 정치와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고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공통의 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정치 분야와 한국정치 분야에서 제기된 민주주의론과 정치사상 혹은 정치철학에서 고찰된 민주주의의 논의가 그간 많이 소통되고 논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이 글의 문제의식은 근거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을 특히 대의제, 공화주의, 계약론적 민주주의론의 논거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 홉스(T. Hobbes)적 근대 권력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정치사상을 정치, 권력,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정치 이론의 역사적 논쟁 속에 개입시키고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랑시에르는 1974년 『알튀세르의 교훈』에서 알튀세르(L. Althusser)의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와 이론적 실천 개념을 비판하고 이로부터 결별한 이래 노동자들의 자생적 사유를 발견하기 위해 19세기 노동자 운동의 문서고를 탐독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의 밤(1981)』에서 ‘주체화’의 의미를 지배 매카니즘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적 각성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피지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사유에서 찾게 된다. 이후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의 세미나와 발표회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저술된 『역사의 이름들』은 랑시에르 자신의 이러한 역사/철학 연구를 바탕으로, 미술레에서 브로텔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가들을 다시 읽으면서 주체화의 글쓰기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무지한 스승』은 노동자가 어떻게 스스로 앎과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저술인 『프롤레타리아의 밤(1981)』과 이후 본격적인 정치적 저술과 연결된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 이후 저술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와 『불화(1995)』는 본격적으로 그의 정치적 개념을 명확히 드러낸 저술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특히 랑시에르의 주된 정치적 저술이라 평가되는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Aux bords du politique(1990)』와 『불화La Mécontente(1995)』,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한 저술인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와 논문과 대담인 “민주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급진성(the radical)’을 구성하며 의미하는지의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논쟁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해석과 정치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급진 민주

대한 기존 연구 검토로는 박주원, 2024.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Le Maître Ignorant*』에 나타나는 앎과 해방의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주체의 문제”, 『대한정치학회보』, 32집 1호, 1장; 박기순, 2013. “자크 랑시에르, 잊혀진 이름의 귀환—국내의 랑시에르 연구 현황”, 『역사비평』, 105호; 진태원, 2015. “옮긴이의 말”, 자크 랑시에르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5-9 참조.

주의'라는 개념은 현대 민주주의의 전개와 분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60년대를 풍미한 발전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나아가 계약론적 민주주의를 보다 확장하려는 담론적 민주주의 논의들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왔던 민주주의 개념과도 결을 달리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³⁾

영미 학계에서 급진 민주주의의 논의는 주로 셸리번(N. O'Sullivan), 윌린(S. Wollin), 무페(C. Mouffe)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이 근거하고 있는 정치철학적 전제와 방향은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이들의 주장이 하나의 '급진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 논의로 해석되는 까닭은 그들이 사회의 갈등(agonal) 나아가 그것의 '적대(antagonism)'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⁴⁾

물론 이들이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담론 민주주의 논의 또한 1960~70년대의 발전적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일정한 시도 속에서 출현한 것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 제기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전개되고 있는 '협의 민주주의론(deliberative democracy)', '소통 민주주의론(communicative democracy)', '결사 민주주의론(associational democracy)' 등의 논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자유롭고 공공적인 '협의(deliberation)' 혹은 '소통(communication)'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자유민주주의 이론이 '차이(difference)'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방해물로 해석했다면, 반면 협의 민주주의 이론은 '차이'를 오히려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⁵⁾

이러한 담론 민주주의 논의들은 내부에서도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즉, 협의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차이를 강조할 것이냐(Jean Cohen, Joshua Cohen), 아니면 참여와 협의의 공공적 규범성을 강조할 것이냐(J. Habermas, S. Benhabib), 혹은 공적 담론양식과 공간의 특권화에 대한 저항적 소통을 강조할 것이냐(I. Young, J. Mansbridge)라는 것으로 상이한 강조점과 실천양식을 드러내며 전개되었다.

협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자유롭고 공공적인 정치영역의 형성을 중시

3) 1990년대 이후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은 더 이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을 명시적으로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주의적 경향과 반제도주의적 경향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자유주의적 실천과 급진적 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클라우스 오페. 1993. "새로운 사회운동: 제도정치의 경계에 대한 도전", 이병천, 박형준 편.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서울: 의암, 142-157 참조.

4) 조희연. 2009.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경제와 사회』, 통권 제82호.

5) Phillips, Anne. 1996. "Dealing with Difference: A Politics of Ideas or a Politics of Presence", Seyla Benhabib. (edt.)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143.

하는 논의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어떠한 민주적 정치체제도 전체적으로 강권의 사용을 제거하거나 혹은 완전한 정당화를 획득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적 권리들, 자유로운 협의와 결사, 법의 지배, 정치적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제도적 보호와 함께 저항의 비공식적인 협의적 장소를 육성하고 가치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협의 민주주의는 탈집중화된 공론영역과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모형을 제안하고 있다.⁶⁾

반면, 결사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의 전략은 사회적 토대로서 이차적 결사(association)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들에 의한 공공권력의 사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협의 민주주의나 소통 민주주의와 구분된다. 즉 결사 민주주의는 명백한 정치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정치영역에서 배제된 이익을 결사의 형태로 조직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⁷⁾ 이들은 조합주의 이론과는 달리 결사의 조절 역할이 국가의 한정된 능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히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⁸⁾

한편, 협의 민주주의가 협의(deliberation)를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것, 혹은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소통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는 사회적 차이에 주목하고 권력이 담화 그 자체에 들어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⁹⁾. 이와 관련하여 아이라스 영(Iris M. Young)에 의하면, 소통 민주주의는 협의 민주주의가 첫째, 정치체(polity)의 통일성(unity)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정치에서 권력이 아닌 논증의 힘을 증

6) 협의 민주주의론자로는 J. Habermas, S. Benhabib, Jean Cohen, A. Philips을 들 수 있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입론을 자유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를 대당으로 한 논쟁이라고 표현하며, 코헨과 벤하비브는 민주주의의 절차성과 규범성을 조화하려는 논쟁이라 표현하고 있다. Habermas, Jurgen. 1996.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Benhabib, Seyla.(ed.) 1996.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7)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결사 민주주의는 협의 민주주의가 '과정'의 필연적 결과인 공공선을 전체하게 된다고 비판하며, 협의 민주주의는 공적 가치를 배제한 순수한 과정으로서의 결사 민주주의란 결국 여러 결사들의 집단거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는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Cohen, Joshua. 1997.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J. Bohman & W. Rehg (ed.) *Deliberative Democracy*, The MIT Press, 110, 112.

8) 결사 민주주의와 협의 민주주의간의 차이는 답론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체(substance)로 보느냐, 과정(procedure)으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 민주주의'는 자율적 공공영역에서 협의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을 공정한 과정으로 형성하기 위해 연관된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면, '결사 민주주의'는 협의의 과정을 '절차'의 역할만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한다. Cohen, Joshua. 1997.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J. Bohman & W. Rehg (ed.) *Deliberative Democracy*, The MIT Press, 96.

9) Young, Iris M.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Seyla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123.

진시킬 뿐이며, 셋째, 정치적 경제적 권력만을 이야기 할 뿐 그것에서 비롯된 말하는 자들의 어법, 말하기 방식 자체에 내면화된 문화적 불평등, 문화적 권력은 이야기하지 않으며, 넷째, 특정한 근대적 소통양식과 공간으로서 의회를 특권화하며, 다섯째, 따라서 협의의 규범은 다만 일반적인 언술을 특권화한다고 비판한다.¹⁰⁾ 이에 근거하여 소통 민주주의는 협의의 민주주의론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된 방식으로 문화적, 사회적 지위의 광범위한 차이(difference)를 가로지르는 소통의 토대와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담론적 해결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 되어야 하는가라는 전략적 차이를 넘어서 과연 협의와 토론의 공간으로서 자율적 공적영역이 중립적인 것인가가 질문되었기 때문이다. 담론적 민주주의 논의들에서 주장되었던 시장적 계약이나 국가의 협약, 혹은 자율적 공공영역에서의 협의와 구분되는, 민주주의를 급진화 시킬 수 있는 장소와 방향은 어디에서 찾아지는가? 담론 민주주의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의 과정을 통해, 나아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실천의 논지 속에서 일련의 논의들이 급진 민주주의론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영미 학계에서 급진 민주주의를 주요하게 제기했던 논지를 살펴보면, 설리번(N. O'Sullivan)은 담론 민주주의론이 갈등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적 다양성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유토피아에 대한 고도의 합리주의적 해석으로의 도피라고 비판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호니그(B.Honig)는 권력이나 갈등과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 권력에 의해 손이 닿지 않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에, 그에게 민주주의는 갈등의 불가피성과 저항의 불제거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²⁾ 문제는 자유롭고 공적인 협의의 장소가 존재 불가능할 때, 갈등을 문제화하고 해결할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점이였다.

윌린(S. Wollin)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구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장소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정치(politics)가 조직화되고 불평등

10) Young, Iris M.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Seyla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122-125.

11) 설리번(O'Sullivan)은 '담론적 민주주의' 논의의 한계를 네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담론이 현대세계에서 통합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 명료하지 않다. 둘째, 정치적인 것과 소통적 합리성을 등치시킴으로써, 갈등이 소통적 합리성의 실패의 징후로만 간주된다. 셋째, 정치과정과 의지형성과정을 동일시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핵심이 의지형성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승인된 의무라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넷째, 결국 '정치적인 것'을 내재화시키며, 급진적인 반정치적 전략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O'Sullivan, Noel. 1997. "Difference and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Political Studies*, XLV, 743-744.

12) Honig, Bonnie. 1993. *Political Theory and the Displacement of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 Press.

한 사회적 힘에 의한 공적 경쟁으로서 합법화된 것이라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은 다양성으로 구성된 자유로운 사회가 공공적 협의를 통해 집단의 힘이 집단의 복지를 보호하고 촉진하는데 쓰여질 때 그 공통성의 순간을 향유하는 이념의 표현인 것이다.¹³⁾ 그러므로 그는 민주주의를 단지 정부나 제도, 헌법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를 정치적 생존의 기억이 지속되는 한 정기적으로 되풀이 될 수 있는 존재의 양식(a mode of being)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¹⁴⁾ 그럼에도 근대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입헌 민주주의¹⁵⁾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이었던 해링턴과 토크빌에 의한 것이었다고 윌린(S. Wollin)은 지적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조화되고 경계 지워지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⁶⁾

무페(C. Mouffe)에게서도 민주주의가 급진화될 수 있는 지점은 다원주의(pluralism), 권력(power), 적대(antagonism)로 제시된다.¹⁷⁾ 무페에게서 급진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에서 다원주의의 이념을 민주적 혁명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관계들 속에 존재하는 종속관계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성, 인종, 계급, 환경 등을 포함하는 상이한 민주적 투쟁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¹⁸⁾

13) Wollin, Sheldon. 1996. “Fugitive Democracy”,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32-33.

14) Wollin, Sheldon. 1996. “Fugitive Democracy”,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43.

15) 민주화 이행론, 민주적 제도화론, 합리적 선택이론, 다수결 민주주의, 계약론적 민주주의론, 참여 민주주의론 등이 가지는 유사점은 그 각각이 저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도적 합리성으로 제시하건, 경제적 합리성 혹은 규범적 합리성이라고 제시하건 간에 모두 그러한 민주적 합리성의 실현이 현실의 정치체도와 입헌적 질서 안에서 합의가능하다고 보았다는 데 놓여 있다. Parry, Geraint & Moran, Michael. 1994. “Introduction: problems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London: Routledge; 조희연. 2009.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경제와 사회』, 통권 제82호.

16) 윌린(S. Wollin)은 입헌 민주주의가 첫째, 정치적 활동을 합법적/비합법적 활동으로 제한하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둘째, 선거구기에 따른 일시적 민주주의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한계를 부여한다고 비판한다. Wollin, Sheldon. 1996. “Fugitive Democracy”,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33-35.

17) 무페(C. Mouffe)에게 급진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의 관점에 설 때 가능한 것이지만, 그는 자유주의에서의 다원적 민주주의와 급진적인 것으로서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분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란 확장된 민주적 모델의 응용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상징적 질서로서 일종의 정체(regime)일 뿐이며, 이러한 상징적 질서는 가치와 견해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단지 도덕철학이나 가치이론적 수준에서의 다원주의일 뿐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5.

18)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7.

나아가 무페(C.Mouffe)는 그러한 다원주의가 사회의 권력관계 속에 세워졌을 때, 그리하여 사회의 적대(antagonism)를 인식하고 바꿀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급진적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사회관계의 완벽한 조화를 실현시키려는 꿈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환상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권력의 관계들이 실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관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아는 것, 그러한 전략을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radical and plural democracy)’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적 정치의 주요한 질문은 어떻게 민주적 가치들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의 형태를 구성할 것인가¹⁹⁾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 민주주의의 제 논의들 중에서 그 이론적 입장을 ‘급진적’ 민주주의 논의라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첫째, 민주주의의 목적을 ‘합의’에 두지 않으며 둘째, 민주주의의 실현방식을 현실의 입헌적 제도 내에서가 아니라, 제도 밖의 실천 속에서 현실의 법과 제도의 경계를 바꾸어 새로운 권력의 관계를 구성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프랑스 정치철학자인 랑시에르(J. Rancière)의 민주주의 논의 또한 이러한 급진적 흐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이 가지는 급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의 민주주의 개념이 이들 민주주의 논의들과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글이 서두에서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분석에 앞서 현대 민주주의 논의들에 대한 짧지 않은 프롤로그(prologue)를 기술했던 까닭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이 글은 급진 민주주의 혹은 무엇이 민주주의의 ‘급진성’을 의미하며 구성하는지의 물음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해석과 정치적 입장을 내포하는 것이자 그러한 물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론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만들어왔다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을 간접적으로나마 현대 영미 학계의 급진 민주주의 논의와 실제적으로 개입시키고 연관시키려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이론사적 분석이 이 글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은 랑시에르의 정치철학에서 민주주의 개념을 근현대 민주주의론에 가하고 있는 비판의 정치철학으로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론의 역사와 논쟁의 흐름 안에서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 Mouffe, Chantal. 1996. “Democracy, Power, and the ‘Political’”, S. Benhabib (edt.)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248.

II. 근대 계약론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 아르케로서의 민주주의, 중심으로서의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

랑시에르(J. Rancière)의 민주주의 개념은 이제까지 아르케(arche, arkhe)로서 민주주의를 바라보아왔던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²⁰⁾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르케(arche)²¹⁾ 논리와 단절, 곧 아르케의 자질로 지배를 예견하는 것과 단절하는 것이며, 특정한 주체를 정의하는 관계형태로서의 정치 체제 자체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공통의 권위 아래 사람들을 결집하는 여러 방식들 중 어느 특수한 정체(constitution)를 뜻하는 하나의 정치체제가 전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설립하는 것(institution), 정치적 주체와 그것의 관계 형태를 설립하는 것이다.”²²⁾

그에 따르면, 정치란 아르케 논리와 단절하는 것인데, 그것은 힘을 행사하는 자와 그것을 감수하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혹은 ‘합법적인’ 혹은 ‘정당한’ 것으로 말해지는 위치 분배와 단절하는 것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질에 합당하고 자연스런 자리와 몫이 있다는 관념과 단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²³⁾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Aux bords du politique*(1990)』 서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생각을 명확히 나타내준다.

“정치란 공동체를 지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일치하는 인간 행동 형태이며 인간 집단의 결집과 명령을 작동시키는 규칙들에 대한 예외이다. 민주주의는 통치 형태도 사회적 삶의 방식도 아니며, 정치적 주체들이 존재하기 위해 거치는 주체화 양식이다.... 나는 「정치, 동일시, 주체화(1991)」에서 공동체를 경영하는 기술인 치안(*la police*)과 평등 전체를 현실화하는 것인 정치를 구별함으로써 바로 이 분리를 정초하고자 했다.... 정치적인 것(*le politique*)

20) 이는 ‘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도 드러난다. “민주주의, 즉 ‘Democracy’는 ‘군주정’을 뜻하는 ‘monarchy’나 ‘과두정’을 의미하는 ‘Oligarchy’ 등과 달리 ‘아르케’가 붙어있지 않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체를 지칭할 때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데모스’와 ‘아르케’를 결합해서 정체를 지칭한 경우는 없었다. 즉 ‘데마키’라는 정체는 없다. 민주주의라는 용어에는 ‘아르케(arche)’가 없는 대신 ‘힘’을 뜻하는 ‘크라토스(kratos)’가 붙어 있다” 고병권. 201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17.

21) 아르케 정치(archi-politique)는 랑시에르가 『불화』 4장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플라톤이 창설한 정치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아르케 정치의 고유한 특징은 정치적 활동을 소수의 집단에게만 할당하고, 데모스 또는 인민은 오직 삶의 필요와 관련된 일에만 종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2) 자크 랑시에르.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240-241.

23) 자크 랑시에르.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238-239.

은 치안과 정치라는 두 원리가 충돌하는 장소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와 뺏어지는 형태들의 체계이다.”²⁴⁾

『불화*La Mécontente*(1995)』에서도 그는 아르케 정치(*archi-politique*)가 플라톤이 모델을 제공한 것으로 공동체의 아르케를 온전하게 실현하고 통합적으로 감성화하는 것에 기초를 둔 폴리테이아(*politeia*)의 기획²⁵⁾을 가장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기술하면서 아르케 정치(*archi-politique*)를 비판한다.²⁶⁾ 또한 이 책에서 랑시에르는 플라톤에서 유래한 아르케적 관념 뿐 아니라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그의 정치철학을 메타정치(*meta-politique*)의 창시자로 비판하고 있다. 그의 기획은 “철학과 정치 사이의 갈등의 형상들이자 정치를 제거함으로써 실현하는 역설의 형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고대 플라톤에 기원하고 그로부터 근거해온 오랜 아르케 정치의 관념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근대 계약론적 정치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랑시에르는 사람들이 흔히 ‘정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집단들의 결집과 동의, 권력의 조직, 장소들 및 기능들의 분배, 이러한 분배에 대한 정당화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를 ‘정치’가 아닌 ‘치안(*police*)’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의 본질을 감각적인 것의 나눔에서 찾는다.²⁷⁾

여기에서 ‘치안(*la police*)’²⁸⁾은 단순한 공적 통치체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치안은 “행위 양식들과 존재 양식들 및 말하기 양식들 사이의 나눔/분배/몫/자리/자격²⁹⁾을 정의하는 신체들의 질서이며, 이 질서는 신체들이 그 이름에 따라 일정

24) 자크 랑시에르.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17.

25) 그에 따르면, 플라톤이 고안해 낸 공동체로서의 국가, 즉 폴리테이아(*politeia*)는 사회 각 부분들의 모든 활동 속에서 공동체의 원리와 목적이 표현되는, 동일자의 정체로서 기능하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폴리테이아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정체, 하나의 삶의 양식, 하나의 정치양식으로서, 그러한 양식에 따라 폴리테이아는 자신의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자신의 리듬에 따라 숨을 쉬고 각각의 부분에 그것에 고유한 기능과 덕(*arete*)을 지정해주는 유기체적 존재로, 그 삶의 모든 발현 속에서 자신의 내면성 원리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13-114.

26)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15.

27)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267. 고대 이래의 정치 개념과 근대적 정치 개념에 함축된 전체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Aux bords du politique*(1990)』를 관통하는 주제였으며, 『불화*Mécontente*(1995)』에서는 이를 ‘치안’으로서의 근대적 정치개념에 대한 비판을 넘어 불일치, 불화, 그리하여 감각적인 것들의 재구성이라는 그의 대안적 정치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28) 랑시에르에게 ‘*la police*’란 ‘사회 내에서 아르케의 원리-출생, 부, 능력-에 따라 위계적으로 자리, 기능, 몫을 배분하고 그에 따라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공통 공간에 보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들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셈하고 나누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경찰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러나 그는 통치라는 단어의 경우 *arche*를 지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police*를 통치라고 부르기는 적절치 않다. 보통 번역자들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척도의 유지를 뜻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치안’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자크 랑시에르.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28-29. 옮긴이 각주 1) 참조.

한 장소에서 일정한 과제를 부여받고 행위 하도록 만드는 것”³⁰⁾이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지배, 곧 치안을 근거 짓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자연적인 것이고 합당한 것으로 보이게 만듦으로써 지배를 조직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정치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치안을 근거 짓는 배분의 질서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에 의해 고안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을 다른 종류의 감각적인 것의 나눔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된다.³¹⁾

그러므로 랑시에르에게 ‘정치’는 단순히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부분 내지 두 계급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누가 공동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둘러싼 갈등이며, 공동체의 부분들로 만드는 질서, 곧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공동체의 질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안의 정치가 홉스 이래 국가와 정치의 개념을 구성해왔다면, 그에게 민주주의는 기존에 ‘정치(la politique)’라고 불리우는 것들, 즉 통치나 치안의 과정과 ‘정치적인 것(le politique)’, 즉 평등의 과정과의 이질적인 마주침이 일어나는 곳이자 그러한 마주침이 일어나는 정치/해방/실천의 순간으로 파악된다.³²⁾

이러한 인식은 그의 정치 개념이 근대적인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에 정초한 것임을 잘 나타내준다. 예컨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에서 그가 주요하게 기술한 가장자리(bords)라는 단어는 ‘강가’나 ‘연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플라톤의 철학에서 정치가 시작되고 운영되는 장소인 물이나 육지와 대조되는 것인데, 랑시에르는 1990년의 초판에서 플라톤적 정치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기술했던 이 용어가 1998년 수정증보판에서는 『불화』 저술 이후에 이르러서는- 정치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경계, 치안과 정치가 충돌하는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의 ‘경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변하고 확장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정치를 육지의 중심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육지와 육지 바깥을 구분하는

29) 프랑스어에서 파르타주(partage)는 두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공유’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분할’, 분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파르타주 뒤 상시불(partage du sensigle)이라는 랑시에르의 용어는 한편으로는 ‘감각적인 것의 공유’를 뜻할 수도 있고 혹은 ‘감각적인 것의 분할/나눔/분배’를 의미할 수도 있다. 『불화』를 한국어로 번역한 진태원은 위의 개념을 ‘감각적인 것의 나눔’으로 번역하지만 랑시에르가 붙여 파르타주(partage)에 담긴 이중적 의미를 모두 살리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랑시에르는 이 책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나눔(partage)은 단어의 이중적 의미로, 곧 공동성과 분리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정의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 사이의 관계이다. 차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58-59, 진태원의 설명 263 참조.

30) 차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63.

31) 차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267.

32) 차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61, 63, 267.

경계를 통해 스스로의 권력을 재현하는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랑시에르는 권력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정초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민주주의를 정치와 치안의 이질적인 마주침이자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보였던 몫/자리/위치/배분에 대한 이질적인 것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바라봄으로써, 근대적인 권력개념, 즉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표현했던 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³³⁾ 랑시에르의 이러한 논의는 주권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그 권력이 작동하는 경계선 가장자리에서 발생한다는 권력 개념의 수정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는 『불화』 5장 민주주의인가 합의인가에서도 민주주의가 합의와 동의어가 아닐 뿐 아니라 합의를 지향하는 그 어떤 제도나 실천과도 상반됨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³⁴⁾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이제까지 당연해 보이고 합당하게 보였던 질서에 새로운 분할과 경계를 뚜렷이 출현시키는 행위이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권력은 중심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작동되는 안과 그 바깥의 경계인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정치 개념과 민주주의 개념은 근대 계약론적 민주주의가 가정하는 질서와 합의로서의 정치와 주권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대의제, 공화주의,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앞선 장에서,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는 고정된 정치적 형식이나 제도적이고 국가적인 정체(아르케)가 아니며 어떠한 합의의 도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하나의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고 비판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그가 민주주의를 통치형태의 일종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할 행동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자 그러한 잠재성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으로 파악하는데 근거하고 있다.³⁵⁾

민주주의와 관련한 저술인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와 논문과 대담인 “민주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들’에서도 민주주의는 정체와 같이 실재하는 특정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 경계를 반문하고 새로운 경계로 그 권력과 주체를 재구성해가

33) 이에 대해서는 킨(J. Keane)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Keane, John. 1984. “Liberalism under siege: power, legitimation, and the fate of modern contract theory”, *Public life and late capitalism: Toward a socialist theory of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34) 차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55-158.

35) 박주원. 2021. “민주주의의 슬픔-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기억과전망』, 통권44호, 235.

는 실천들로 나타난다. 즉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란 사회체제나 통치형태도 아닌 통치 불가능 그 자체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그는 이러한 ‘통치 불가능성’이 신성 목자의 살해를 통해 비로소 탄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3장을 통해 이제까지 민주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공화주의, 대의제 등의 주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가 보기에 대의제와 공화주의는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와 비슷하거나 최소한 본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그것들은 민주주의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대의제와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엘리트에 의한 통치와 이들의 소유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위해 갖추어진 법과 제도라는 틀에 저항하며 민주주의가 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대의제와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여러 쟁점이 겹쳐져 있다하더라도 민주주의가 그 안에 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의제는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보편성의 단순지배를 낳게 되며, 공화주의 역시 법의 특수성과 공화주의라는 제도가 갖는 기하학적 평등을 통해 엘리트들이 주인공인 무대 위에서만 작동하는 정치로써 민주주의의 영역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³⁶⁾

예컨대, 그는 대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처럼 거대해진 국가나 근대 사회에 알맞은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하지만, 대의제는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실제 대의제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신분과 계급, 재력 등이 우선되어 대표의 기초가 되어왔다. 다시 말해 대의제는 공공영역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어서 결국 과두제의 형태를 갖게 된다. 시민들의 의사 표시인 선거는 민주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³⁷⁾

그 결과 자본과 지식 간의 과두적 동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목표는 바로 정치적인 문제들을 탈 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진단된다. 그 장치인 ‘대의제’라는 평화적 통치는 민주주의적 열정을 사적인 쾌락으로 전환시키며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선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으며, 개인의 욕구 실현이라는 쾌락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소비자에 불과한 ‘민주적인 개인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형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³⁸⁾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만연된 ‘소비적 민주주의 사회’는 과두제의 원인이 아니

36)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3장.

37)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118-119.

라 그 귀결이다.³⁹⁾ 그럼에도 ‘소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잃어버린 신성목자의 재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포퓰리즘 논의가 그것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민중적 정당성’과 ‘과두제적 정당성’ 사이의 악화된 모순을 은폐시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용어이다.⁴⁰⁾ 포퓰리즘은 과두제적 지배가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정당성으로 사용되는 한편, 그러므로 소수 엘리트의 과두제적 지배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과두제에 대한 거대한 염원을 숨기면서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동일한 본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⁴¹⁾

또한 그는 공화주의와 중도주의, 합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유행 담론들 그리고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이 제공한 향락의 증식을 잇는 것은 플라톤이 민주주의적 인간에 대해 그린 (부정적인) 초상을 단순히 옮겨 놓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합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현실주의는 타협들 -아리스토텔레스는 타협을 통해 데모스(demos)를 데모스 자체에서 분리해내고자 했다-의 온갖 형상들을 찍어냈다.”⁴²⁾ 또한 “탈근대의 지혜(비꼬는 역설적인 표현임)는 정치의 평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낡은 정식 -다중의 교란적 정서들에 대한 사회적 중합, 중도주의-에 바탕을 두게 만들었다.”⁴³⁾는 것이다.

그는 공화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먼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공화주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자체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영역간의 자리바꿈이다. 두 영역은 정치와 사회라는 두 영역간의 엄격한 경계를 주장하면서, 공화정과 어떠한 특수성도 인정하지 않는 ‘법의 지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공화주의는 사회적

38)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156-195.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회형태나 통치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위 ‘민주주의 사회’는 바람직한 통치의 환상적인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회는 사실 과두제의 게임에 의해 운영되며, 정확히 말하면 민주적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116.

39) 박주원. 2021. “민주주의의 슬픔-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기억과전망』, 통권44호, 239.

40)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167.

41)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이 용어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회자되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마치 과잉정치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탈정치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탈 정치화된 개인들이 사적 영역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 단지 권리들 간의 경쟁이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으로 정의되어 버린다면, 그 귀결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그 경쟁에서는 이미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 이미 권리를 가진 자의 권리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주원. 2021. “민주주의의 슬픔-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기억과전망』, 통권44호, 239-240.

42) 자크 랑시에르.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14.

43) 자크 랑시에르.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14-15.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적 제도’의 중립성 속에서 구현되는 평등 원리의 화신인 양 자처하게 된다.”⁴⁴⁾

그리하여 공화주의는 국가에 의한 -법을 통한- 사회의 규제에 귀결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야기할 수 있는 균열을 소멸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정치는 사라지고 관리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화주의가 평등을 주요한 가치로 하는 것임에도 평등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 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평등을 관리하고 셈할 수는 없기에 이를 국가의 주요한 공적 업무로 여기는 공화주의는 그 공정한 비율을 찾기 위한 전문가 혹은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을 출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평등과 불평등의 공정한 비율을 찾아주는 과학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평등한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이 인간의 영혼 속에 적절한 비율로 금, 은, 철을 부어넣는데 실패했듯이, 과학 역시 평등과 불평등간의 공정한 비율을 찾는데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 장엄한 과학은 플라톤 아래 “정치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전문지식에 의거한 통치는 출생성분에 기초하는 엘리트에 의한 통치로 귀결되어 버리는데, 이러한 통치체제하에서는 지식인들의 사회적 권력이 출생성분과 재력에 기초한 권력과 결탁하게 된다.⁴⁵⁾

한편, 랑시에르는 많은 민주주의 ‘들’이 전제하거나 목표하고 있는 ‘합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합의민주주의란 “진정한 정치 계약, 곧 모든 사람이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집단적인 재화를 최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적 정치적 형식들에 대해 개인들 및 집단들이 일치할 수 있는 계약”⁴⁶⁾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현실에 직면해있다고 지적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고 합의 민주주의 또는 형식 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히려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나 민주주의의 대의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훨씬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그

44)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136. 랑시에르가 보기에 공화주의라는 용어는 단순히 만민에게 평등한 법이 지배만을 의미할 수는 없다. “(공화주의라는 용어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정치의 과도함을 정치영역의 제도화된 틀 안으로 흡수 하려는 의지가 가지고 있는 긴장을 통해 생성된 개념인 것이다. 정치의 과도함을 흡수하는 것, 그것은 모순되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즉 사회 내의 제도적 틀이나 성문법을 통하여 정치의 과도성을 고정시킴으로써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법체계를 사회의 관습체계와 동일한 선상에 놓음으로써 정치의 과도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137.

45)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149.

46)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57.

까닭을 다음과 같이 불화의 소멸, 그리하여 정치의 소멸에서 찾고 있다.

“현재 군림하는 목가적 관점은 **합의민주주의**에서 개인들과 사회 집단들 사이의 **합리적인 동의를** 보려고 한다....그러나 합의는, 부분들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어 있고, 부분들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말에 대한 셈은 그들의 언어적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합의가 전제하는 것은 계쟁의 부분과 사회의 부분 사이의 모든 간극의 소멸이다. 그것은 인민의 이름 및 인민의 자유의 공백이 열어놓은 외양 및 계산 착오, 계쟁의 장치의 소멸이다. 즉 그것은 **정치**의 소멸인 셈이다.”⁴⁷⁾

즉, 합의 민주주의에서는 부분들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어 있고, 부분들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말에 대한 셈은 그들의 언어적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모든 부분들 사이의 간극 없는 상태를 전제하거나 종교에는 간극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아래서 사고될 수 있는 유일한 갈등은, 혹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갈등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일 뿐이다.⁴⁸⁾

나아가 그는 근대 민주주의 논의가 오랫동안 가정해오던 데모스(demos) 혹은 ‘인민’이라는 보편적인 이름은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경계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단일한 실재가 아니며 따라서 보편적인 이름으로 구성될 수도 총체성으로 파악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데모스(demos)를 가난한 자나 일정한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아무나(n’importe qui)’로 표현한다.⁴⁹⁾ 즉 그에게 민주주의는 ‘가난한 이들의 권력’이나 ‘별거벗은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할 자격을 갖지 못한 이들의 권력’으로 정의된다.⁵⁰⁾ ‘민주주의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빼고는 통치하는 데 필요한 어떤 특별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이들의 권력’이라는 것이다.⁵¹⁾

47)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63-164.

48) 합의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조정만이 중요해질 뿐이며, 이때 합의란 각자 최적의 몫을 획득하는 일종의 체제라고 비판된다; “이들은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해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 각 부분에게 객관적인 여건상 기대할 수 있는, 어쨌든 갈등보다는 더 바람직한 최적의 몫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쟁이 아닌 평화에 대한 선택이기 이전에 합의는 감각적인 것의 특정한 체제다.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64.

49) “자유와 평등은 한정된 주체들에 속하는 술어들이 아니다. 정치적 술어들은 열린 술어들이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누구와 관계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열어놓는다.” J. Rancière. 2004.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vol. 103, no. 2-3, 303.

50) 진태원. 2013. “랑시에르와 발리바르: 어떤 민주주의?”, 『실천문학』, 통권 110호.

그러므로 그에게 인민의 권력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의 권력을 뜻하는 것도 다수의 권력이나 노동계급의 권력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통치 받을 자격만큼이나 통치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유한 권력을 뜻하는 것이다,⁵²⁾ 그에게 민주주의의 통치가 정치성을 갖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통치할 자격의 부재, 즉 ‘아무나(n’importe qui)’의 통치에 놓여있게 된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하여 보이는 자, 보이지 않는 자, 말하는 자와 말하지 못하는 자(언어를 가지지 못한 자), 대표되는 자, 대표될 수 없는 자, 이름이 없는 자, 뜻이 없는 자로 나뉘어져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인민’ 주체 개념 대신, 이렇게 보이지 않고,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감각적인 것의 나눔과 그 경계 사이를 흔드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의 출현들을 통해 비로소 출현하는 ‘주체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던 것이다.⁵³⁾

IV. 결론: 불화(Mésentente)로서의 민주주의, 지금 여기에 없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의 민주주의

이 글의 검토에서 본다면, 랑시에르는 정치를 공동체를 지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일치하는 인간행위의 형태이자 명령을 작동시키는 규칙들에 대한 예외를 뜻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근대 이래 공동체의 질서를 수립하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안의 정치가 국가와 정치의 개념을 구성해왔다면, 그에게 민주주의는 통치나 치안의 과정과 평등의 과정과의 이질적인 마주침이 일어나는 경계의 장소이자 실천의 순간으로 파악된다.

51) J. Rancière. 2004.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vol. 103, no. 2-3, 305.

52)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106.

53) 랑시에르의 다음의 언술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권력을 행사할 어떤 특수한 자격도 갖지 않은 자들의 권력**을 뜻하는 **민주주의**는 정치를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 자체입니다. 만일 권력이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한 자들의 소관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자크 루소의 논변이기도 하지요. 가장 강한 자의 권력은 권리라고 서술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권리는 그냥 부과되면 그뿐이니까요. 달리 정당화할 필요가 없죠. 평등이란 하나의 전제이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민주주의란 평등 전제이며, 우리의 것과 같은 과도적 체제조차도 바로 그 전제 위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비판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체에 이중으로 박아 넣은 평등의 췌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는 단순히 치안으로 변형되지 않을 수 있죠.” 자크 랑시에르, 2010. “민주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들’”, 아감벤, 바디우 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 132-133.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정치 개념과 민주주의 개념은 근대 계약론적 민주주의가 가정하는 질서와 합의로서의 정치와 주권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고자 하는 하나의 비판적 시도라고 해석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글은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을 ‘협의’나 ‘합의’가 아니라 불일치(dissensus) 혹은 ‘불화(Mésentente)’로서의 민주주의로 바라보았다. 프롤로그에서 살펴보았듯이 영미 학계의 급진 민주주의 논의들과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지점이자 이들을 현대 민주주의의 제 논의들 가운데 ‘급진적’ 민주주의 논의라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첫째, 민주주의의 목적을 ‘합의’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으며, 둘째, 민주주의의 실현방식을 현실의 입헌적 제도 내에서가 아니라 제도 밖의 실천 혹은 제도가 아닌 역량과 가능성으로서의 행위에서 찾는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현실의 법과 제도의 경계를 바꾸어 새로운 권력의 관계를 구성해 가는데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랑시에르(J. Rancière)의 민주주의 논의 또한 이러한 급진적 흐름에 놓여 있다. 그러나 랑시에르의 ‘불화’ 개념은 합의가 아니라 차이에 주목했던 벤하비브나 코헨, 영의 ‘차이’ 개념이나 합의가 아니라 ‘적대’와 ‘갈등’에 주목했던 설리반, 월린, 무페 등의 급진 민주주의의 적대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랑시에르는 불화(Mésentente)의 의미를 대화자 간에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몰인식(meconnaissance)’이라는 개념과도 구별해야 하며 단어들의 부정확성에서 비롯하는 ‘오해(malentendu)’ 개념과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⁵⁴⁾ 몰인식이나 오해라는 논거는 모두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치료되어야 함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인식이나 오해는 말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치료를 요구하며 그 치료의 목표는 뜻하는 바의 진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무엇을 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서, 랑시에르에게 ‘불화’는 단순히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부분 내지 두 계급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누가 공동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둘러싼 갈등이며, 따라서 공동체의 부분들로 만드는 질서, 곧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의 핵심적 성질을 표현해주는 ‘불화’의 의미는 현재 존재하는 세력이나 논의들 간의 갈등이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탈 무페, 아이리스 영, 낸시 프레이저, 쉘던 월린의 급진 민주주의의 적대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랑시에르에게 ‘불화’는 현재 존재하는 제 논의들 간의 경쟁이나 제 세력들

54)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7-18.

간의 투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의 새로운 출현, 현재 없던 목소리의 담론적 출현을 의미한다.⁵⁵⁾ 불가능했던 것의 출현으로 인해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 척도, 기준에 대해 생겨나게 된 낯선 시선과 불편함. 소란스러움이 바로 그가 이야기하는 불화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타자의 입장(1995)”에서 ‘불가능한 동일시의 동질적인 것으로의 포함’이라 명명한다.⁵⁶⁾ 다음의 진술은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 주체가 왜 인민이나 계급의 규정으로 규정되거나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인지도 잘 드러내준다.

“내가 보여주고자 했듯이, 정치적 주체화는 언제나 세 가지 의미에서 ‘타자의 담론’을 함축한다. 첫째, 정치적 주체화는 타자가 고정해놓은 정체성을 거부하기, 이 정체성을 변조하기, 어떤 자기와 단절하기이다. 둘째, 그것은 타자에게 전달하는 증명이자, 어떤 방해나 해악로 정의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증명이다. 셋째, 그것은 언제나 불가능한 동일시, 즉 우리가 동일시 할 수 없는 타자와의 동일시하기이다.”⁵⁷⁾

즉, 랑시에르에게서 ‘불화’로서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합의가 아닌 갈등을 인정하고 주목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없는 것, 지금 목소리로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새로운 출현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에게 민주주의의 급진적 장소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기에는’ 없다. 그에게 민주주의의 급진적 장소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 장소’, 그러므로 지금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출현하게 될 불가능성의 가능성인 것이다.⁵⁸⁾

55) 이와 관련하여, 메이(T. May)는 이러한 주장을 언젠가 도래할 민주주의에 대한 유토피아적 요청으로 이해하는 반면, 체임버스(S. Chambers)는 이것이 우리가 성취해야만 하는 것을 결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가 무언가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란 결코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즉 민주주의가 하나의 체제나 질서 혹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May, Todd. 2008. *The Political Thought of Jacques Rancière: Creating Equalit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Chambers, Samuel. 2019. *The Lessons of Rancière*(2013), Oxford University Press, 『랑시에르의 교훈』(김성준 역), 그린비, 216.

56) 자크 랑시에르. 2008. “타자의 입장(1995)”,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228.

57) 자크 랑시에르.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223-224.

58) 이러한 랑시에르의 논지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을 찬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기억되고 기념됨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성찰해야 할 행위와 순간들은 있겠지만, 만일 그러한 찬미와 기념의 내용이 오늘날 현존하는 것들, 그리하여 당연해진 것들을 낯설게, 혹은 (감각적으로) 불편하게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참고문헌

- 고병권. 201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 김기수. 2016. “랑시에르의 ‘비판적 예술’에 관하여-예술적 전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83집 제1권.
- 김상운. 2016. “평등의 차연 또는 민주주의와 타자: 랑시에르의 데리다 비판 재검토”, 『문화과학』 85호.
- 김지영. 2012. “이미지와 주체”,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코키토』.
- 김희영. 2011. “자율성을 벗어난 추상: 랑시에르의 미학의 정치에 대한 고찰”, 현대미술학회, 『현대미술학논문집』, 제15권 2호.
- 박기순. 2014. “랑시에르와 민중 개념: 민중에 대한 낭만주의적 해석과 그 대안의 모색”, 『진보평론』, 제59호.
- _____. 2013. “자크 랑시에르, 잊혀진 이름의 귀환-국내의 랑시에르 연구 현황”, 『역사비평』, 105호.
- _____. 2011. “알튀세르와 랑시에르”, 『알튀세르 효과』(진태원 역), 서울:그린비.
- 박민수. 2012. “정치와 미학 그리고 예술-랑시에르의 사상에 관하여”,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제27집.
- 박주원. 2024.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Le Maître Ignorant*』에 나타나는 삶과 해방의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주체의 문제”, 『대한정치학회보』, 32집 1호.
- _____. 2021. “민주주의의 슬픔-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기억과전망』, 통권44호.
- 버나드 마넝. 2004. 『선거는 민주적인가』(곽준혁 역), 서울: 후마니타스.
- 양창렬. 2016. “자크 랑시에르: 제도도 이념도 아닌 민주주의론”, 『진보평론』, 제68호.
- 이영주. 2013. “마르크제와 랑시에르의 정치미학에 관한 이론적 탐색”, 『커뮤니케이션이론』, 제9집 4호.
- 자크 랑시에르. 2013. “민주주의는 유효한가?”, 슬라보예 지젝, 알랭 바디우 외, 『아두 데리다』(최용미 역), 인간사랑.
- _____. 2010. “민주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들’”, 아감벤, 바디우 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
- _____. 2008. 『무지한 스승』(양창렬 역), 궁리.
- _____.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양창렬 역), 도서출판 길.
- _____. 2015. 『불화』(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 _____.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허경 역), 인간사랑.
- _____. 2011. 『역사의 이름들; 지식의 시학에 관한 에세이』(안준범 역) 울력.
- _____. 2021. 『프로레타리아의 밤』(안준범 역), 문학동네.
- _____. 2020. “말들의 역사, 역사의 말들”,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인간사랑.
- 조르조 아감벤, 알랭 바디우 외. 2010.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
- 조희연. 2009.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경제와 사회』, 통권 제82호.
- 주성수, 정상호 외. 2006.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 진태원. 2013. “랑시에르와 발리바르: 어떤 민주주의?”, 『실천문학』, 110호.
- _____. 2013. “무정부주의적 시민성?-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에티엔 발리바르”, 『서강인문논총』, 37집.
- _____. 2011. 『알튀세르 효과』, 서울: 그린비.

- 클라우스 오페. 1993. “새로운 사회운동: 제도정치의 경계에 대한 도전”, 이병천, 박형준 편.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서울: 의암.
- Aristoteles, 2009. *The Politics*, Book III. 『정치학』(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 Arblaster, Anthony. 2002. *Democracy*, Buckingham: Open Univ. Press.
- Arendt, Hannah. 1959.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Baber, Benjamin R. 1996. “Foundationalism and Democracy”, Benhabib, Seyla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 Badiou, Alain. 2009. “The Lessons of Jacques Rancière: knowledge and Power after the Storm”, eds. Philip Watts and Gabriel Rockhill,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alibar, Etienne. 2009. “Interview with Etienne Balibar”, eds. Beth Hinderliter et al., *Communities of Sense: Rethinking Aesthetics and Politics*, Duke Univ. press.
- Biesta, G. & Bingham, C. 2010. *Jacques Rancière: Education, Truth, Emancipation*. London & New York: Continuum.
- Bohman, James & Rehg William (ed.), 1997. *Deliberative Democracy: Essays in Reason and Politics*, The MIT Press.
- Buchanan, Allen E. 1989. “Assessing the Communitarian Critique of Liberalism”, *Ethics*, Vol. 99, No.4 July.
- Chambers, Samuel. 2019. *The Lessons of Rancière(2013)*, Oxford University Press, 『랑시에르의 교훈』(김성준 역), 그린비.
- Citton, Yves. 2009. “Political Agency and the Ambivalence of the Sensible”, eds. Philip Watts and Gabriel Rockhill,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ohen, Joshua. 1997.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J. Bohman & W. Rehg (ed.) *Deliberative Democracy*, The MIT Press.
- Copp, David (ed.) 1993. *The idea of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 Galloway, Sarah. 2012. “Reconsidering Emancipatory Education: Staging a Conversation between Paulo Freire and Jacques Rancière”, *Educational Theory*, 62(2).
- Gould, Carol. 1988. *Rethinking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 Habermas, Jurgen. 1996.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 Holloway, John. 2002. *Change the World without Taking Power*,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조정환 역), 서울: 갈무리.
- Honig, Bonnie. 1993. *Political Theory and the Displacement of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 Press.
- Ieven, Bram. 2009. “Heteroreductives: Rancière’s Disagreement with Ontology“, *Parallax*, 15(3).
- Keane, John. 1984. “Liberalism under siege: power, legitimation, and the fate of modern contract theory”, *Public life and late capitalism: Toward a socialist theory of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 Lefort, Claude. 1988. *Democracy and Political Theory*, Polity Press.
- May, Todd. 2008. *The Political Thought of Jacques Rancière: Creating Equalit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orrice, David. 1994. "C. B. Macpherson's Critique of Liberal Democracy and Capitalism" *Political Studies*, XLII.
- Mouffe, Chantal. 2006. *The Democratic Paradox*, 『민주주의의 역설』(이행 역), 서울: 인간사랑.
- _____. 1996. "Democracy, Power, and the 'Political'",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 _____.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 _____. 1992.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Political Community", C Mouffe. (ed.)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London: Verso.
- O'Sullivan, Noel. 1997. "Difference and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Political Studies*, XLV
- Parry, Geraint & Moran, Michael. 1994. "Introduction: problems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London: Routledge.
- Phillips, Anne. 1996. "Dealing with Difference: A Politics of Ideas or a Politics of Presence", Seyla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 Rancière, Jacques. 2004. "Who In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vol. 103, no. 2-3.
- _____. 2008. "Democracy, Anarchism and Radical Politics Today: An Interview with Jacques Rancière", *Anarchist Studies*, 16. 2.
- _____. 2009. *The Emancipated Spectator*, trans. Gregory Elliot, London and New York: Verso.
- _____. 2009.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15(3).
- _____. 2011. *Althusser's Lesson*, trans. Emiliano Battista,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 Schaap, Andrew. 2011. "Enacting the Right to Have Rights: Jacques Rancière's Critique of Hannah Arend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10(1).
- Schmitter, Philippe C. 1994. "Dangers and Dilemmas of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5. No. 2. April.
- Therborn, G. 1977, "The Rule of Capital and the Rise of Democracy", *New Left Review*. 103.
- Walzer, Michael. 1983. *Spheres of Justice*, Oxford Univ. Press.
- Weale, Albert. 1989. "The Limits of Democracy", Alan Hamlin & Philip Pettit (ed.) *The Good Polity: Normative Analysis of the State*, Basil Blackwell.
- Wollin, Sheldon. 1996. "Fugitive Democracy",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 Young, Iris M.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S. Benhabib(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 Abstract 】

**Where is the Place that Makes Democracy Radical?
: A Political–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Concept
of Democracy in J. Rancière**

Park, JooWon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adical place and direction of democracy through the perspective of J. Rancière's democratic discourse, serving as a theoretical attempt to identify new issues and directions in contemporary democratic discourse. 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and signifies the ‘radical’ in democracy encompass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ontroversies of modern democrac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itself contentious and implies philosophical interpretations and political positions regarding democracy. Specifically, this paper reconstructs Rancière's concept of democracy as a critique of the arguments for representative government, republicanism, and contractualist democracy, and further as a critique of the Hobbesian modern concept of power. It seeks to intervene and connect his political thought within the historical debates of political theory concerning the concepts of politics, power, and democracy.

Since modern times, the politics of policing—aimed at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community order—has shaped the concepts of the state and politics. For Rancière, however, politics is not the art of governing a community, but rather a form of discordant human action and an exception to the rules that govern commands. Moreover, democracy is understood as the ‘border’ where the heterogeneous encounter between the processes of governance or policing and the process of equality occurs, and as the moment of practice. In this sense, his concepts of politics and democracy could be seen as a critical attempt to transcend the notions of politics and sovereignty as order and consensus assumed by modern contractualist democracy.

For Rancière, the essence of democracy lies not in ‘consultation’ or ‘consensus’ but in

‘disagreement’ or ‘*Mésentente*’. For him, democracy as ‘*Mésentente*’ is not merely about acknowledging and focusing on conflict; its core lies in signifying the new emergence of what is not present here and now, of what is not spoken in the present voice. Therefore, ‘*Mésentente*’ does not refer to disputes between existing discourses or struggles between existing forces, but rather signifies the new emergence of the unseen, the discursive emergence of voices that were not present before. It is the unfamiliar gaze and discomfort that arise toward the order, measure, and standards previously taken for granted, due to the emergence of the impossible. For it is precisely this disturbance that constitutes the essence of discord he speaks of. In this sense, for Rancière, the radical place of democracy ‘does not exist’. To be precise, it does not exist ‘here and now’. For him, the radical place of democracy is ‘a place that does not exist here yet, and thus it is the possibility of the impossible.

Key Words : Jacques Rancière, radical democracy, the political (*le politique*), discord (*la Mésentente*), the democracy that is not here yet, the possibility of the impossible